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6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22일(음력 12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옥스퍼드 불교사전엔 '한국불교'만 없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가 발간한 〈옥스포드 불교 백과사전〉에 '한국불교'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티베트, 몽골, 동남아시아 심지어 서구 유럽과 미국불교까지 다루면서도 '한국불교'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옥스포드 불교 백과사전(The Oxford Encyclopedia of Buddhism, 이하 백과사전)〉을 발간했다.

해당 백과사전에 대해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는 "20세기 후반부터 불교학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다양한 담론의 최전선에 섰다"면서 "이를 반영한 이번 백과사전은 불교학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 학문 간의 진화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2024년 12월 23일 발간
옥스퍼드 불교 백과사전
138개 챕터, 1400쪽 '방대'
일본불교 챕터 14개 집중
미국, 유럽불교 3개 다뤄

'한국불교' 관련 기술 全無
"日불교 연구주제 편중돼
백과사전 함량 미달" 지적
韓불교학 위상 확립 '화두'

백과사전에는 〈옥스포드 불교 문헌학(Oxford Bibliographies in Buddhism)〉 편집장이자 일본 진언종 수행자인 리차드 페인과 게오르기오스 T. 할키아스 홍콩대 교수가 대표 에디터로 참여했으며, 리처드 살몬 워싱턴대 교수, 바바 노리히사 도쿄대 교수, 브라이언 바우만 버클리대 교수, 옌츠 슐리터 베른대 종교과학연구소 교수 등 120여 명의 전문 불교학자들이 참여했다. 동국대에서 카메론 베일리 교수가 참여했다고 소개되지만 그는 2022년에 퇴직했다.

약 1400여 쪽에 달하는 백과사전은 138개의 챕터로 이뤄질 정도로 방대하다. 주요 내용은 〈아비달마구사론〉, 〈현관장엄론〉 등 경전 해설부터 불교 인물, 불교미술, 불교철학, 지역 불교까지 전반을 망라한다. 최근 부각되는 있는 세계화, 의료, 뇌과학, 미디어, 생명윤리 등 응용불교 영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챕터를 나눠 다루고 있다.

지역 불교의 경우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동남아시아 심지어 미국불교와 서구 유럽불교까지 다루지만 챕터 어느 곳에서도 '한국불교'는 찾을 수 없었다. 지역 불교의 역사와 문화 등을 다룬 챕터들은 티베트 불교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 불교 14개, 중국 불교 12개, 동남아·남아시아·중앙아시아 불교 8개, 미국 불교 2개, 유럽 불교 1개, 대만 불교 1개 순이었다.

특히 일본 진언종 수행을 하고 있는 리차드 페인이 대표 에디터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내용의 양과 질이 일본 불교에 편중됐다. 실제 내용을 실펴보면 △일본 불교와 의학 △불교와 신토(神道) △스즈키 다이세츠 전기와 영향 △니치렌 등 불교 인물 △나라 시대 불교 6종파 △진언 △일본의 밀교 불교 등 다양한 분야들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인도·네팔에서 탄생한 불교가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졌고, 한반도의 불교 역사가 1700년에 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옥스포드 불교 백과사전〉이 백과사전을 표방하면서도 '한국불교'를 표제어에서 누락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더욱이 한국불교학계에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비롯해 불교학부 교수 정덕 스님, 안양규 WISE캠퍼스 교수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어 저술 관련 인력풀을 운운할 수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불교학자는 "백과사전의 목차들을 살펴보면 서구 유럽 불교학계가 관심 있는 연구주제만을 선별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일본 불교 관련 연구에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 불교들도 일본에 비하면 표피적인 수준이다. 이를 놓고 '백과사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이 책이 옥스퍼드 대학이 중심이 된 것인지 따로 기획해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서구 유럽 불교학계 연구 주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반대로 한국불교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 기치의 노정된 한계도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한국불교와 현대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기초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현대 한국불교학의 역사 10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인 인지도가 일본이나 티베트불교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국제적 연구 추세는 삶에서 불교가 어떻게 적용되고 경험되어질지에 관심이 많다. 이런 연구들이 이뤄지고, 연구자들도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딱딱한 교리서, 법문집은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녹아있는 한국불교 스님의 회고록 등을 우선 번역해 소개하면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홍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옥스퍼드 불교 백과사전〉 관련 질의서를 1월 16일 보낸 상황이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1월 15일 통도사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서 법어를 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눈 녹으면 봄이 오듯 봄이 오고 있다"

조계종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
성파 대종사 희망의 교시 전해
진우스님 "승가교육 혁신" 강조

"어려움이 있어도 자장매의 향기는 온 누리에 퍼진다. 구름도 그 무엇도 향기를 막을 수 없다. 눈 녹으면 봄이 오듯, 우리 곁에 봄이 오고 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겨울철 향기를 품은 매화를 언급하며 "어려운 시국에도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교시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불기 2569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성파 대종사는 "신년을 맞아 종단스님들과 사부대중 그리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년은 해마다 있고 지금이 곧 신년이다. 항상 신년을 맞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언제나 지금이다. 명심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정월달이 신년이라 하지만 우리 출가사문은 언제나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고 나중에 공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의 큰 수레바퀴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대중을 보고 우리는 마치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프듯 함께 아파해야 한다. 이번 한해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스님들이 되시기길 바란다"고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파 대종사는 "산에 구름이 가득 있으면 산인지 구름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구름이 사라지면 일만이천봉 본래면목이 드러난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화 향기는 안개와 구름을 뚫고 전하듯 우리에게는 봄이 다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 법회는 개회, 헌향, 헌다, 헌화에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통알, 종정예하 하례, 입정, 신년말씀, 하례, 인사말씀, 불단삼배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지혜와 자비로 정진할 것을 독려했다.

진우 스님은 "을사년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이다. 국가와 사회적 위기의 시기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혜와 자비를 중심으로 종단은 정진 할 것"이라며 "종도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비와 평화, 사회통합의 정신을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불교를 열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종단은 승가 교육과 복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사회 전문가 조직을 종단의 테두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전법 일꾼과 자원봉사자 배출 등 전법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한 승가교육과 복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승가교육 역시 전면적 혁신을 준비하고 행자 교육 시스템부터 기본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일대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종단 운영의 중요 동력인 스님들의 복지 역시 질적 도약이 중요하기에 이제는 '전면 복지', '완전 복지'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년하례 법회에는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원각 대종사, 일면 대종사, 보선 대종사, 원행 대종사, 법등 대종사, 정여 대종사, 동명 대종사 등 원로의원스님이 참석했으며, 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스님, 25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강의수 포교사단 수석부단장 등이 동참했다.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梵魚

의상대사 창건
화엄종찰
호국불교의 중심사찰
국난(國難) 때 마다
민족불교를 지키는 중심 역할

2025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전문 · 연구) 신입생 모집

■ 모 집 대 상 | 기본교육기관 졸업 및 비구계 수계자 (2025년 구족계 수지 예정자 포함)
■ 전문반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3. 기본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3x4) 3매(종단 가사 장삼 수한 사진)
■ 전문반 수업과목 | 1 · 2학기 경분별, 불교윤리학, 범망경, 대승계경, 건도, 선원청규, 종헌 종법 등
■ 연구반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3. 율원 전문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 사본
4. 연구과제 계획서 및 필기시험(본대학원에서 율장의 기본소양 점검)
5. 반명함판 사진(3x4) 3매(종단 가사 장삼 수한 사진)
■ 연구반 수업과목 | 1 · 2학기 인도부파 불교, 율장, 초기승단, 한국불교 계율, 중국대승불교계경 등
■ 접 수 기 간 | ~2025년 2월 11일(화 음1.14)까지 (방문, 이메일, 우편)
■ 입방 갈마 일정 | 일 정 : 2025년 02월 13일 (목 음. 1.16) 시 간 : 오후 1시
장 소 :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큰방 준비물 : 가사, 장삼
■ 지 원 사 항 | 1인 1실 방사 지원, 매월 수행비 지원, 졸업여행 경비 지원,
교재 지원, 장학금 지급, 전문 습의사 자격 등
■ 원 서 접 수 | 우 편)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종무소 교무주임
이메일) beomeosa@daum.net
■ 전형 및 결과발표 | 면접 및 갈마 차후 개별 통보
■ 문 의 | 범어사 종무소 교무국 051-508-3122,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051-508-2171

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범석수불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원 창

2025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 신 · 편입생 모집

화엄 종주 의상조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한 「화엄경」사상과 경허선사께서 오래 주석하시면서 비롯된 선풍을 계승한 범어사 승가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사미 (2025년 봄 사미수계 예정자까지), 비구
■ 모집기간 | ~2025년 3월 31일(※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입방지원서 및 신상명세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서약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3)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2025년 사미계 수지자는 생략 가능)
4) 사미증 사본
5) 사진(만의복장, 3×4규격) -3장
■ 준 비 물 | 만의(사미), 장삼, 발우
■ 전 형 | 서류심사, 면접(추후 개별 연락)
■ 지원사항 | 강의교재 구입비 및 최신형 테블릿 지원
졸업여행 지원 또는 해외 연수 비용 지원
입학금 면제, 전학년 매월 수행비 지원
화엄경 특강(화엄경 연구원 대강백 무비큰스님)
학습시간 및 여가시간 보장
동국대병원 MOU 체결, 병원비 · 약품비 지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범어사승가대학 051)508-3127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승가대학
방장 여산정여 대종사 · 주지 정오 · 학장 도산